

# 엘리트 판사에서 적폐로 몰려...



법무뉴스

## - 법원행정처 출신 지법 부장급 6~7명 줄사표 -

다음 달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원행정처 출신의 지법부장급 판사들이 대거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지난 1월 16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행정처에서 근무 중이거나 과거에 일했던 지법부장급 판사 6~7명이 최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철을 앞두고 판사들이 옷을 벗는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법원 내 엘리트로 평가받았던 행정처 출신 부장판사들이 한꺼번에 사표를 낸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법원 내부에선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부장판사들이 법복(法服)을 벗는 것은 법원 전체적으로도 적지 않은 손해'라는 말이 나온다.

원행정처가 법관들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추진하던 '대법원장 인사권' 관련 세미나를 축소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부터 행정처는 법원 안팎으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년 말 법원행정처에 판사 뒷조사 문건이 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하라고 지시하자 일부 판사는 행정처를 향해 악담과 욕설을 퍼부었다. 일부 판사는 지난달 인터넷의 판사 전용 익명 게시판에 행정처 판사들을 향해 '개 XX' '적폐 종자 따까리들'이라며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행정처 판사들을 집중 공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관 사회는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지지하는 판사들과 이를 반대하는 판사들로 갈라져 큰 갈등을 빚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행정처 출신 판사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이것이 사표를 던진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에 사의를 밝힌 행정처 출신 부장판사들 중 일부는 주변에 “행정처가 범죄 집단처럼 매도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이런 현상이 최근 행정처 출신 판사들을 '적폐(積弊)'로 모는 법원 내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초 법

김 대법원장이 취임 후 '행정처 개혁'을 전면  
에 내세운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  
이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사법  
정책을 총괄한다. 행정처 심의관(평관사) 20여  
명이 이 일을 한다. 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  
는 사람은 관사 한 기수에서 10%도 안 돼 발탁  
인사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행정처는 소수 인  
력으로 효율적인 사법행정을 담당해왔다는 긍  
정적 평가와 함께 사법부 관료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동시에 받았다. 이 와중에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지난해부터 행정처의 문제점을 집중  
적으로 제기했고, 이 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대  
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행정처 축소 및 개편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법원 내부에선 “앞으로  
행정처 출신은 인사 등에서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퍼졌다.

김 대법원장이 올해부터 '고법 부장관사 승  
진제'를 폐지한 것도 한 원인이라는 관측도 나  
온다. 김 대법원장은 고법부장 승진제 때문에

관사가 인사권을 쥐 윗선의 눈치를 본다는 지  
적을 받아들여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인사를  
이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법 관사와 고법 관  
사 중 하나를 선택해 계속 근무하도록 해서 사  
실상 승진 개념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평관사  
→지방법원 부장관사→고법부장(차관급) 관  
사 순으로 승진하게 돼 있는 기존 구조를 바꾸  
겠다는 것이다. 고법 부장관사 출신 변호사는  
“고법 부장관사가 되지 못할 바에야 일찍 변  
호사로 개업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  
다.”고 했다.

한편 '최순실 국정 농단' 관련 사건의 재판장  
을 맡았던 한 부장관사도 최근 대법원에 사표  
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법 부장급 이상  
고위 법관 중에선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정만 서울중앙지법 민사1 수석부장관사, 유  
해용·여미숙 서울고법 부장관사 등 4명이 사  
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인용)

## 법무매거진



#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

## 1. 인사 배경

- (1) 법무부는 부산지검 검사장 및 대검찰청 강력부장 직무대리 체제를 해소하고, 법무부 탈검찰화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검사가 아닌 고위공무원단을 보임하며,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체제 정비를 위하여 일부 검사장급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다.
- (2) 전문성과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였고,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 사회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함께 고려하였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 2. 인사이동내역

- 이상호(대전지검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
- 고기영(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찰청 강력부장
- 오인서(광주고검 차장검사)⇒대검찰청 공안부장
- 이석환(청주지검 검사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 권익환(대검찰청 공안부장)⇒대전지검 검사장
- 이동열(법무연수원 기획부장)⇒청주지검 검사장
- 김영대(창원지검 검사장)⇒부산지검 검사장
- 배성범(대검찰청 강력부장)⇒창원지검 검사장

법무뉴스

# 사법연수원 나서는 제47기 연수생...

## 취업률 상승 51%

- 지난 1월 15일 수료식 기준...171명중 76명 취업...작년比 6% ↑ -

지난 1월 15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일산소재 사법연수원(원장 권한대행 김기동)에서 제 47기 사법연수생(사법시험 출신) 수료식이 열렸다.

이날 수료생은 44기 2명, 45기 6명, 46기 11명, 47기 152명 총 171명이다. 이 중 남자는 101명, 여자 70명이다.



<김기동 사법연수원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수료생 대표가 수료증을 받고 있다>

수료식은 수료증 수여, 시상 및 표창장 수여, 사법연수원 원장 식가, 대법원장 치사 및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 축사, 수료생 서약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법원장상은 박재남(남, 1990년생, 고려대학교 졸업, 군법무관 임명예정) 씨에게 돌아갔다. 이어 법무부장관상 김준하(남, 1989년생, 서울대학교 졸업, 군법

무관 임명예정), 대한변호사협회장상 동한나(여, 1986년생, 단국대학교 졸업, 재판연구원 임용)씨가 차지했다. 김상선 제47기 자치회장 등 자치회 간부 및 반장 등이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법조인 가족도 탄생했다. 오모 수료생의 부친은 현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유모(여) 수료생의 부친은 현직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1월 12일 기준으로 제47기 수료생들의 취업률은 지난해 동일기준 45.03%보다 5.6% 상승한 50.66%를 기록했다. 총 171명 중 평균 입대 인원 21명을 제외한 150명 중 76명이 취업이 확정된 상태이다.

구체적으로는 재판연구원 14명, 검사 21명, 변호사 31명, 국가·공공기관 8명, 기업체 등 기타 직역 2명이다.



<제47기 김상선 자치회장이 자치회 간부 및 반장 등과 함께 수료생 서약을 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연수생들은 수료 후 5~6개월 후면 전원이 취업에 이른 만큼 이들 제47기도 수개월 후에 취업률 100%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취업경쟁 심화, 경기침체, 정부부처별 채용권한 축소(행정안전부 일괄채용 후 각 부처에 배분), 공공기관·기업체 등에서 부여하는 직급 및 급여의 하락, 고용변호사의 지위불안 등 채용자와 연수생 간의 이해 대립 등으로 여전히 취업난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사법연수원측의 분석이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진로정보센터의 활성화, 취업설명회 개최, 변호사실무수습 인턴제, 변호사 대체실무수습제, 전문분야 실무수습의 강화, 지도교수 및 취업전담교수의 적극적인 취업지도 등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고자 꾸준히 노력 중'이라며 "변호사로 취업하는 수료생들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그 지역도 다양화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변호사실무교육(특히 기

업·공공 부문 자문분야 교육)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치사를 통해 "불과 몇 십년 전까지만 해도 사법연수원 수료가 안락한 삶을 보증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지금 법조계는 엄청난 질적, 양적 변화를 겪고 있어, 현실이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도약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격려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마주하는 변화의 환경과 난관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시각과 과감한 실천력으로 새로운 법조 시대를 열어 나가길 바란다"고 한 후 특히 "법 기술자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법조인의 사명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법률저널 인용)

<제47기 수료생 취업현황 및 특징, 사법연수원 제공>

구분	제47기				제46기		
	2018년 1월 12일 기준		2017년 1월 13일 기준		2017년 8월 31일 기준		여자
	총인원	여자	총인원	여자	총인원	여자	
전체 수료인원		171	70	234	69	234	69
군 입대 인원		21		43		43	
취업대상인원		150	70	191	69	191	69
재판연구원		14	7	24	11	24	11
검사		21	14	25	8	25	8
변호사	개인/합동고용			1		26	9
	법무법인	29	7	23	11	67	18
	단독/공동개업	2		5	1	12	2
	국선전담 변호인			미정	미정	1	0
국가·공공기관		8	6	4	1	17	9
기타 직역 (기업등)		2		4	2	12	8
총 취업대상인원		76	34	86	34	184	65
취업대상인원대비 취업률		50.66%	48.57%	45.03%	49.28%	96.3%	94.2%
미정인원		74	36	105	35	7	4



법조인 동정

## 安哲相 대전지방법원장, '서오남' 공식 깨고 대법관에 임명



安哲相 대전지방법원장[제24회(1982년)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5기]이 '서오남(서울대학교를 나온 50대 남성)'의 틀을 깨고 새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비서울대학교 출신인 안 지법원장과 서울대학교 출신이지만 여성인 민유숙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제28회(1986년)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8기]를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제청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사회 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심사숙고했다.”고 밝혔다.

安哲相 대전지법원장은 '서오남'이라는 기존의 틀에는 해당하지 않는 인물이다. 건국대

학교 법대 출신으로, 30여 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형사 및 행정 재판을 두루 담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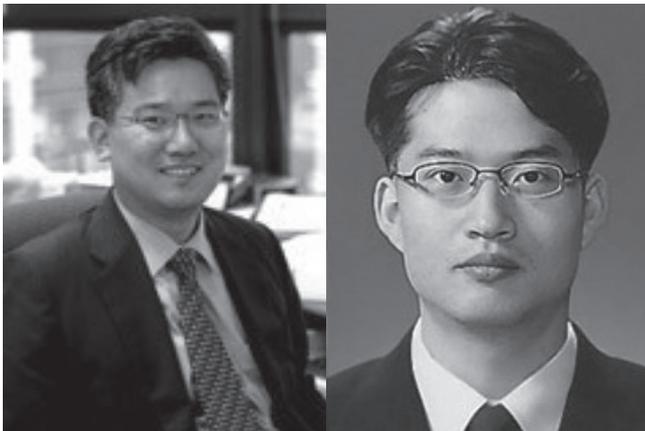
安哲相 서울행정법원 재판장으로 있던 지난 2007년에는 암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군인을 강제 전역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방부에 “국민의 직업상 권리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여성가족부가 가사에 '술'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특정 가요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결정한 것을 취소하라는 판결,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귀화 불허 처분을 받은 중국동포의 귀화를 인정하는 판결, 미얀마 출신 민주화 운동가를 난민으로 인정한다는 판결 등을 내렸다.

이러한 安哲相 지법원장의 판결은 이후 다양한 사건에 대한 선례를 남김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법학원 '제22회 법학논문상'에  
학계는 천경훈 교수,  
실무계는 이상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정



법조인 동정



(좌)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이상덕 대법원 재판연구관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은 제22회 법학논문상 수상자로 천경훈(46세, 사법연수원 제26기, 상사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상덕 대법원 재판연구관(40세, 사법연수원 제32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천경훈 교수는 2010년부터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상사법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해왔다. 수상논문인 '회사에서의 이익충돌'(저스티스 제159호)은 이익충돌 관점에서 회사법을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참신한 시도로 높이 평가받았다.

이상덕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법적 규율'(사법논집 제63집)이라는 논문을 통해 행정처분 재심사 제도의 필요성과 규범적 한계에 관한 설득력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2018년 1월 26일(금) 오후 5시 30분 반포동 웨라튼서울팔래스강남호텔 1층 로얄볼룸에서 개최되는 한국법학원 정기총회에 앞서 열린다.

## 여성변호사회 신임 회장에 조현옥 변호사 취임



법조인 동정



조현옥(51·사법연수원 제19기) 법무법인 도움 변호사가 한국여성변호사회 제10대 회장에 내정됐다. 임기는 2년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1월 15일 오후 6시 서초구 강남대로 엘타워 5층 매리골드홀에서 '제28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10대 회장단 취임 및 신임임원 선임이 있을 예정이다. 또 일부 정관개정과 여성아동인권상 및 공로상 시상식도 진행된다.

부산 동래여자고등학교를 나온 조현옥 변호사는 1986년도 서울대학교 법대 재학 중 제28회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1990년~1999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 변론 활동을 했다. 2000년~2008년까지는 대전지법 등에서 판사로 일했다.

2008년 변호사 개업 이후에도 아동·청소년, 장애인, 외국인 등 인권 신장과 관련 변론 활동에 힘써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 변호사,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지원 변호사, 서울시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 법조 공익모임 '나우' 이사 등을 역임했다.

조현옥 변호사는 현재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맡고 있다.